

“일제, 조선인 공출 의무화…전쟁 물자 확보”

심정섭 명예관장, 면화·가마니 공출명령서 등 2점 공개
순사 대동해 공갈·협박…기일·수량 위반 시 모진 고초

일제강점기 일본이 군량미와 군복 등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해 조선인에게 공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엄벌에 처했던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

31일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식민역사박물관 명예관장인 심정섭씨(82·광주 북구)는 면화(솜) 공출명령서와 가마니 공출명령서 등 2점을 공개했다.

1937년 일제는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이듬해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해 조선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후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한 잔혹하고 집요한 일제의 수탈이 시작됐다. ‘조선에 있는 것은 가져가고, 없는 것은 만들어서라도 가져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대표적인 공출 품목은 식량(쌀), 면화(솜), 가마니(비료 등) 등이었다.

심씨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제기인 낫그릇이나 손가락까지 빼앗아 총탄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일제의 쌀 증산 노력로 인해 흉년이 들었지만, 대부분 균용미로 공출한 탓에 조

선인이 먹을 것이 없었다.

굶주림에 못 견딘 조선인들은 산에 올라 꾀뿌리를 캐거나 풀뿌리,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등 초근목피로 연명, 이른바 ‘풍년 기근’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심 명예관장이 공개한 면화(솜) 공출명령서는 전남 영암군수가 1940년초 영암군 시종면 월악리에 거주한 김태환에게 발송한 것이다.

면화 공출명령서의 크기는 가로 9.5cm, 세로 13cm이다.

공출명령서 전면에는 ‘면업보국’이 적혀있다. 후면에는 ‘소비업금’이라는 표어와 면화재배 면적, 공출명령 수량이 기재돼 있다. 수량은 141근(84.6kg)이다.

공출의무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도 적시됐다.

△면화증산과 가정의 소비절약은 후방국민의 책무이다 △면화를 판매할 때 반드시 면화공출명령서를 면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한다 △생산면화는 반드시 공출수량 이상으로 재배해야 한다 △공출명령서에 적힌 수량을 반드시 지킨다. 만약 공출수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식민역사박물관 명예관장인 심정섭씨가 31일 면화(솜) 공출명령서와 가마니 공출명령서 등 2점을 공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량을 위반하면 엄벌에 처한다 등이었다.

당시 일제는 조선인이 공출 기일을 위

반하면 주재소에 끌고가 모진 고초를 당

하게 만들었다. 순사를 대동해 공갈·협박

했고, 나쁜 조선인으로 내몰아 각종 불이익을 줬다.

공출 수량을 위반하거나 의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강도 높은 노역을 시켰다. 탄광에서 일하는 노무자를 우선 징집 대상으로 분류해 군대로 차출하고, 자녀들의 학교 진학을 막는 등 각종 불이익을 줬다.

가마니 공출명령서는 1943년 11월 전북 익산군 낭산면장과 낭산 경찰관 주재소(파출소) 수석(주임) 이 낭산면 석공리에 거주한 김윤만에게 보낸 것이다.

명령서 크기는 가로11cm, 세로 14cm이다. 공출기간은 1943년 12월10일부터 1944년 3월말까지이며, 공출 수량은 쌀 가마니 10매(개)와 비료 가마니 40매로 총 50매이다.

심 명예관장은 “일제가 군량미와 군복을 충당하기 위해 가마니와 면화의 공출을 집요하게 강요했다”면서 “공출명령서에 일제의 주도면밀한 강압과 착취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제는 ‘고도국방체제국가’라는 안보개념을 표방하면서 조선인의 경제와 의식주 생활을 극도로 통제했다”면서 “심씨어 춘추필법(春秋筆法)에 의거해 자기 중심주의적 역사를 해석했다”고 비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동구, 계림초교에 어린이 승하차구역 신설

광주 동구에 어린이 승하차 허용 구역이 처음으로 신설된다.

31일 동구에 따르면 계림초교 인근 계림동 66-1(두산위브1차 아파트 정문 인근)에 어린이 승하차 허용 구역이 지정된다.

이번 지정은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 학생을 태운 휠체어 리프트 장차 대형 버스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승하차 구역은 길이 15m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통차 차량이 5분 이내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다. 동구는 차량이 일시적으로 정차할 수 있는 구간임을 표시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지난해부터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과 차량 흐름 저해 등을 이유로 동구에 어린이 승하차 허용 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동구는 등부경찰, 계림초교 등 관계 기관과 안전한 통학 환경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며 지난 7월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신설 계획을 구제화했다.

동구는 오는 17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승하차 허용 구간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안내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전남 동부해상, 올 상반기 기름 1330ℓ 유출

올 상반기 전남 동부해역에서 1330ℓ의 오염 물질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여수와 광양, 고흥, 보성 등 전남 동부해역과 경남 하동·남해 일부 해역에서 총 18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으로 침수·침몰 등 해난사고가 8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인적 부주의에 따른 사고가 5건(27%)으로 뒤를 이었다.

오염물질 유출량은 1330ℓ로 지난해 같은 기간(1280ℓ)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오염원별로는 어선 사고가 7건(38%)으로 가장 많았고, 유출량 기준으로는 기타선(모터보트, 부선 등)에서 총 452ℓ(34%)가 최대였다.

여수해경은 항포구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어선 선저배수 적법처리 이행실태·폐기물 기록관리 점검 등 어선 맞춤형 테마 점검을 병행한다. 여수=송원근 기자

해남군 반계리서 청동기~조선시대 유구 확인

주거지·옹관묘 등 108기 출토…생활시설 역할

전문가 “중심 유적지 가능성 ↑…추가 조사를”

전남 해남군 반계리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르는 옹관묘, 건물지 등 다양한 유구가 발견됐다.

31일 해남군, 경성문화유산연구원 등에 따르면 해남군 계곡면 반계리 791번지 일원(면적 1217㎡)에서 (원)삼국시대 주거지 1동, 폐기장 1기, 옹관묘 1기, 수혈 11기와 조선시대 굴립주 건물지(땅을 파서 기둥을 세우는 건물) 1동 등 총 108기의 유구가 출토됐다.

이번 조사는 해남군이 한 토지주에게 내린 육묘장 건립공사 시행 전 문화재 조사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기간은 2023년 6월8일부터 7월14일까지였다.

조사된 유구 중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유구는 1호 주거지와 1호 옹관묘이다.

1호 주거지에는 연질토기편, 파수부편, 지석편 등이 수습됐다. 실생활에 사용된 시루, 장판형토기 등이 출토되지 않아 정확한 시기를 구분하기 힘들지만 1호 옹관묘와 동일한 시기로 분석됐다. 규모는 길이 340cm, 너비 298cm이며, 평면 형태는 말각장방형이다.

1호 옹관묘는 길이 84cm, 너비 42cm로, 유물의 격자타날기법, 옹형토기의 소형화, 실생활에 사용되는 옹형토기가 있어 3세기 이후 대규모의 대형 옹관묘가 출현하기 전 2세기 원삼국시대에 조성된 유구로 판단된다.

청동기시대에 등장한 옹관묘는 전라도에 집중됐고, 특히 영산강과 광주 신창도, 평동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외에도 구, 폐기장, 수혈, 주혈에서 출토된 토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등이 확인됐다.

1호 구 내부에서 경질 굽다리접시(고배)와 6호 구의 대호편, 78호 주혈의 소형토기 등 의례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돼 조사 대상지가 위치한 정상부에 원삼국시대에 걸쳐 이와 관련된 생활유적이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방형 형태를 띤 조선시대 1호 굴립주 건물지의 규모는 길이 552cm, 너비 390cm, 주혈의 깊이는 10~25cm였다. 이곳에서 백자편, 옹기편, 연질토기편이 나왔다. 연구원은 주거지, 폐기장, 굴립주 건물



삼국시대 1호 옹관묘에서 출토된 장동옹편.

지 등의 발견으로 취락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해남 일평리, 황산리의 유적과 비교했을 때 중심취락 주변의 생활유구로 파악됐다.

조사를 담당한 경성문화유산연구원 관계자는 “반계리791번지는 바다와 주변 구릉지에서 내려온 쇄설물 등으로 형성된 곳이다”며 “이 일대를 추가 조사하면 마한인의 생활양식을 보여준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패총 유적’에 버금가는 중심 유적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 계곡면 일대는 흑석산(북쪽), 서기산(동쪽), 만대산(남쪽)으로 둘러싸여 대부분 산악지이며 부분적으로 구릉지가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해남=정성주 기자 sjs8239@gwangnam.co.kr

SOCIETY

2025년 8월 1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

☀️ 예보 05:41 달출 12:48
☁️ 예보 19:36 달진 23:21



광주	☀️	26~35
목포	☁️	26~32
여수	☀️	26~32
순천	☀️	25~35
구례	☀️	23~36
광주	☀️	26~33
임도	☀️	26~34
흑산도	☁️	25~32
고흥	☀️	25~33
진도	☁️	25~32

목포	미물(고)	06:41 / 19:25
셀물(저)	12:03 / --:--	
여수	미물(고)	01:00 / 13:43
셀물(저)	07:08 / 19:40	

국도 공사 중 ‘신석기 유물’

만년필 ○~여수시 국도 77호선 화태~백야(1공구) 도로공사 구간에서 신석기시대 유물 발견.

31일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8월1일 익산시방국도관리청이 주관한 여수국도77호선 화태~백야(1공구) 도로건설공사 부지 내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55 일원에서 ‘개도리 정목 패총’ 현장발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1~6단계 폐각층이 10~150cm 이상의 두께로 확인, 신석기시대의 용기문·무문 토기편과 동물의 뼈, 빨 등 유기물을 소재로 만든 골각기 등이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나라문화연구원 관계자는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신석기시대의 문화층이 형성됐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 송태영 기자 여수=송원근 기자

3년 만에 또…광주 도시철도 2호선 인근 상수도관 파열

수돗물 9000여t 지상 솟구쳐…금호동 도로·상가 침수
주민들 불안감 확산…“원인 분석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잊을 만하니 또다시 터졌습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2공구 공사현장 인근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오전 6시13분 광주 서구 금호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이번 2공구 내 상수도관이 파열돼

9000여t의 수돗물이 분출하면서 도로와 인근 상가가 침수됐다. 지름 600mm 상수도관의 접합부가 이탈하면서 막대한 양의 물이 분수처럼 하늘로 치솟아 도로에 쏟아졌고, 일대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음식점 내 식재료는 흘러들어 온 물로 사용도 하지 못하고 버려야 했고, 옷 가게의 물품은 모두 젖은 상태였다. 일부 상가의 경우 인도가 무너지면서 통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1일 오전 금호동 도시철도 공사현장 상수도관이 파열돼 9000여t의 수돗물이 분출했다.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인근 상인들은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계 안으로 들어온 물을 빼내기 여념이 없었고, 몇몇 상인들은 물이 건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모래주머니로 건물 입구를 막

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터졌네. 또 터졌어’, ‘지하철 공사 때문에 뭘 난리여’ 등의 하소연을 하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관 파열 후 1시간여 만인 오전 7시44분 수돗물 단수 조치를 취했다.

다행히 가정으로 직접 급수하는 수도관이 아닌 예비 용도의 수도관이 터져 실제 단수 피해를 입은 가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치솟은 물줄기는 몇 분 뒤 분수처럼 쏟아지며 사거리 도로 전체가 물에 잠겼고, 이내 인근 마트와 카페 등 상가로 물이 들이닥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상수도관 파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상수도관 파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난 2023년 6월에도 똑같은 사고가 있었다.

당시에도 상수도 물이 솟구쳐나오면서 사거리 일대가 물에 잠겼고, 사고 발생 시간이 퇴근 시간과 겹치면서 교통 정체 등 불편이 컸었다.

앞서 이곳에서 500여m 떨어진 풍금사거리 주변 공사현장에서도 공사에 투입된 굴착 장비가 지하 매설 250mm 상수도관을 건드리면서 파손돼 누수가 발생했다.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편을 넘어 우려와 격정이 커지고 있다.

이번 오후 금호1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하철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피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

해 도시철도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를 비롯해 피해 상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에 이어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인제나 다름 없다’, ‘예방 조치도 없고, 민원을 넣어도 피드백이 없다’ 등 그간 참아왔던 불만을 쏟아냈다.

인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정모씨는 “지인에게 물이 또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준비하고 나왔다. 잊을만하면 수도관이 터지는데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며 “불안해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 뿐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고 토로했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계 조절을 통해 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며 “신속한 예방 조치와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향후 상수도관 누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